

## 은행 대출 원금 · 이자 유예 또…130조 '시한폭탄'

데일리안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시행돼 온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 ·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오는 9월까지 연장 실시 금융사들이 코로나19 여신 지원 정책에 따라 재약정을 포함해 만기를 연장해 주거나, 원금 혹은 이자 상환을 유예해 준 금액은 총 130조3556억원, 그중 은행은 88.81조.

## 금리 1.75% 넘는 은행예금 '전멸'

매일경제

2일 한국은행의 은행권 정기예금 통계를 분석한 결과 시중은행 정기예금 가운데 1.75% 이상 금리를 주는 상품 비중은 0%(1월 신규 취급액 기준)를 기록했다.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6년 1월 이후 1%대 중후반 예금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이번이 처음

## 노선 바꾼 지방은행…JB, 신용대출 절반은 '중금리대출'

e대한경제

코로나19로 높아진 기업대출 리스크를 고려해 대출 포트폴리오 재조정하고 NIM 개선을 목표로 옮 들어 지방은행들이 중금리대출을 대폭 확대 지난달 기준 BNK 경남, 부산, DGB 대구, 광주 JB 전북은행 등 5개 지방은행의 전체 신용대출 취급액 중 중금리대출 비중은 27.52%. 전년 동월(19.28%) 대비 8.24%p 증가

## 코로나 장기화에 은행권 대외채무 다시 '급증'

파이낸셜뉴스

20년 4분기 은행권의 대외채무는 전 분기 대비 약 7%, 전년 동기 대비 약 14% 증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금융기관들이 외화 유동성 확보 위해 외화 차입을 늘렸기 때문 작년 저금리 유지되면서 채권 발행 여건이 양호했고 바이든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 향후 금리 상승이 전망됨에 따라 저금리일 때 달려 채권을 발행해놓자는 수요 발생

## 즉시연금 '태풍의 눈', 삼성생명 4000억대 소송 결과 내달 연기 가시화

머니투데이

법조계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일 금융소비자연맹이 삼성생명 즉시연금 관련 집단소송의 선고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으나 재판부의 사정으로 연기됐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금소연과 삼성생명의 재판 건은 재판부 이동으로 오는 4월 초 한 차례 더 변론을 진행한 후 상반기 중 선고를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지존' 삼성화재 입지 혼들…점유율 7년 연속 내리막

해럴드경제

지난해 삼성화재 시장점유율은 원수보험료 기준 22.2%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줄었다. 89조원 규모인 손해보험시장은 지난해 6.3% 성장했지만 삼성화재 매출은 3.8% 상승 2위 현대해상 시장점유율은 16.2%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상승, 3위 DB손보는 19년 15.5%에서 20년 15.8%로 확대, 5위 메리츠화재는 10.3%로 지난해 처음 10% 상회

## 한화손보에 남는 캐롯손해보험…'자본 확충'이 숙제

ZD Net Korea

대주주 적격성 심사 지역에 한화자산운용으로의 매각이 전면 백지화되면서 자리를 지킨 캐롯손보가 친정 한화손보와 함께 새로운 도약에 도전하게 됐다. 한화손보로부터 상품 개발과 리스크 관리, 소비자 민원 등 보험업 전반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으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기 위한 자본이 부족하다는 단점 상존

## 현대중공업, IPO 대표 주관 '한투 · 미래대우'

팍스넷뉴스

현대중공업의 상장 대표 주관사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가 선정했다. 주관사단 선정을 마친 현대중공업은 올해 하반기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목표 공모규모를 놓고 보면 기업 내부적으로 상장 몸값(시가총액)을 최소 5조원 이상이 기대하고 있고, 상장 예정 주식의 20% 수준에서 신주 발행으로 1조원의 자금 확보 계획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